

사회주의문명이 개화만발하는 전변의 시대

로동당시대의 사회주의문명거리로 훌륭히 일떠선 화성거리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하여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할수 없게 한다.

지난해 국가에서 인민들을 위해 건설한 송화거리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당들과 시설물들의 독특한 건축미에 누구나 감탄을 터치었다. 그러나 최근에 성대한 준공식을 하고 새집들이풍경이 펼쳐진 화성거리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하여 만사람의 더 큰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송신, 송화거리보다 건설부지가 근 3배에 달하는 화성거리에 일떠선 건축물들은 공화국의 인민들이 누리게 될 문명의 높이를 현실로 체감하게 한다. 특색있게 뻗어나간 대도도들을 중심으로 서로서로 키돋움하며 우아하고 황홀한 자태를 자랑하는 형형색색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당들과 시설물들...

화성거리에 펼쳐진 새롭고 독특한 건축양식은 결코 지

상에서만 느낄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채양을 한 지하건물길에 들어서면 지하공간을 방불케 하듯 특색있게 설치된 벽그림판들과 간접조명효과로 하여 시설물의 품위가 한층 살아나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터치게 한다.

정녕 화성거리의 새 거리는 로동당시대의 별천지이다.

《사람마다 한결같이 말하고있습니다. 지난해 일떠선 송화거리도 아름답지만 화성거리의 새 거리는 그야말로 장관중의 장관이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이전에는 송화거리에 입사한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했었는데 오늘은 《사람들이여, 화성거리의 새 주인인 우리를 부러워하라!》고 소리높이 웨치고있습니다.》

《보면 불수목 회한합니다. 황홀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의 이상향이라는 말뜻을, 사회주의 문명이 어떤것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다음해에 일떠서게 될 새 살림집들은 또 얼마나 멋있겠는지 정말 상상해볼수록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화성거리에 새집들이를 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터치는 이 격정의 목소리들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공화국에서 인민을 위해 일떠세우는 새 거리들과 창조물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주체건축의 모습과 나라의 문명수준을 폐부로 느낄수 있게 한다.

화성거리에 펼쳐진 그림같이 아름다운 인민의 보금자리들,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개화만발하는 사회주의문명을 가슴마다에 뜨겁게 안아본다.

공화국인민들이 훌륭한 보금자리에서 마음껏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이상이고 높으신 뜻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화성거리건설과 관련하여서도 설계와 공사일정으로부

리 시작하여 건설력량과 시공분담, 건설자재들과 건설장비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하시며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건설마감의 비중을 높여 도시미화에서 현대적인 맛을 더 잘 살릴데 대한 문제, 국책을 반영한 표어를 설치하여 거리의 정치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모든 급양, 상업, 편의봉사시설들을 살림집구획안에 꾸려주고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들을 편결시켜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한 오수물프장, 지하건물길, 버스로선문제 등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화성거리의 새 거리 건설을 위해 친히 보아주시고 완성시켜주신 형성안만도 무려 1630여건에 달한다.

때로는 집무실에서, 또 언제인가는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미흡한것은 더욱 완성시켜주시고 부족한것은 보충

해주시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새 거리, 새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인민의 새 리상거리를 더욱 아름답게, 가장 훌륭하게 꾸러주시실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었으면 주변야산에 몸소 한구루 또 한구루 정성껏 나무까지 심으셨겠는가.

진정 인민들에게 행복의 별천지, 사랑의 금방석,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모든것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사랑과 헌신, 원대한 리상에 떠받들려 태양의 성지가가되어 사회주의변화가 황홀한 광채를 내뿜으며 희한하게 솟아날수 있었던것이다.

세상에는 변화함을 자랑하는 거리들도 많고 호화주택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시대를 격동시키며 솟아난 공화국의 새 거리, 새 살림집들처럼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야 한다

절세위인의 크나큰 응지, 열렬한 숙원에 받들려 일떠

선 인민의 리상거리, 사회주의변화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빛나게 실현시켜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은 한없이 뜨겁고 그이의 비범한 창조력의 세계는 무한대하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과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미레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중평온천실농장과 평포온실농장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시대의 걸작품, 기념비적창조물들이다.

어디 이뿐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과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공화국에서는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가 펼쳐지고 온 나라의 곳곳마다 누구나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새집들이경사가 려리어 펼쳐지고있다.

지난 4월에도 회창군 신지동리, 평산군 청학농장, 서

흥군 문무리, 재령군 신천포리, 청단군 신생리, 용진군 대기리를 비롯하여 평안남도, 황해남북도의 여러 농촌마을에서 새집들이경사가 온 나라를 명절분위기로 더욱 흥성있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문천시, 연안군, 은파군의 여러 농촌마을에서도 새집들이가 진행되었다.

5월에 들어서서도 평안북도의 구성시 상단동, 선천군 김봉리, 운전군 운하리, 동림군 보성리, 삭주군 청수남새농장에 훌륭한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서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였다.

지역의 특색과 세련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성과 미학성이 보장된 문화주택들은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편을 이룩하여 농민근로자들을 새시대 농촌문명의 향유자들로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행복의 보금자리들이다.

누구나 보고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이런 크고 멋있으

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촌문화주택들을 해마다 도처에 수없이 지어 온 나라의 농촌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시키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이다.

하기에 국가의 배려로 돈한푼 안내고 훌륭한 살림집들을 받아안은 각지의 농민근로자들은 격정에 겨워 평범한 농장원들에게 국가에서 지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고 새시대 농촌문명의 향유자들로 내세워주시는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하면서 이 땅의 천만자식들을 따듯이 품어안아 보살피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더욱 황홀하게 변모될 공화국의 래일, 더욱 문명해질 자기들의 행복한 래일을 그려보며 위대한 시대를 더욱 빛내이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들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리영수



시 **사랑의 거리, 화성땅의 기념비여!**

김태룡

화창한 4월의 이 봄날 땅우에만 아름다운 꽃들이 웃는가오, 화성거리에 솟은 인민의 거리 밤하늘에 터져오른 환희의 축포는 행복의 꽃보라 축복의 천만꽃송이구나

별을 따내려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 불뛵은 창가는 눈이 시리도록 부신펀 하늘을 떠받든 역척기동인양 눈부리 아득한 초고층살림집은 구름우에 올라야 그골이 보일듯

넓게 트인 대문로에 늘실대는 인과는 행복을 떠시고 굽이쳐온 기쁨의 파도 웃으며 울며 새집의 주인들은 온밤 놓을 줄 모르누나 입사증을 보석인들 그리도 정히 어부랪부라

불과 1년 너무나 꿈만 같이 솟았구나 기적의 거리 금방석에 앉히고싶은 인민

해마다 넓어지는 새 삶의 터전우에 그림같이 펼쳐진 선경의 거리 황홀하게 일떠선 만복의 보금자리여

둘러보라 인민을 울리는 이런 사랑의 집 단 한채인들 이 행정에 서있는가를 인민의 피땀으로 세운 변화가는 있어도 인민이 주인으로 사는 변화가는 없거니

가까이서 보아도 멀리서 보아도 절로 탄성이 쏟아져나오는 멋쟁이집들 그 누구에겐들 물어보라 천금 들어 세운 회한한 이 거리에 돈으로 사들인 집 어디 있으며 돈없다 열리지 않는 집문이 있는가를

사랑이 흐르고 복락이 넘치는 거리 존엄과 승리가 맥동치는 거리 너는 사회주의조선의 상징으로 이 화성땅에 우뚝 솟아 빛나누나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여!

그것이 가슴타는 열망이고 소원이여서 착공의 날에 오셨던 절을 준공의 날에도 이으신 원수님이 그이 은정에 떠받들려 솟은 사랑의 거리

인민을 위해 마음도 많이 써오신 그이 심혈의 응결체 이 땅은 인민의 참세상임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증견자 처 송화에 이어 자본주의화호를 다시한번 짓들러 딛고선 인민의 별천지여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 국제사회계의 반향 -

근로인민모두가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는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울려나오고있다.

인도네시아의 《국제일보》는 조선인민은 세습이라는 말자체를 모르고있다. 민기 어려운 사실은 이뿐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조선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살림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활동은 철두철미 인민생활향상에로 지향되고있다.》

로씨야의 한 신문은 녀성들의 산전산후휴가제, 국가 부담에 의한 정유양제를 비롯하여 조선인민이 받고있는 혜택은 막대하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이러한 사회주의책속에서 살림집적정, 자녀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치로 걱정 등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있다고 전하였다.

파키스탄신문 《포렌스코 아이즈》도 조선을 방문하였던 사람들은 서방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목격하였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한다고 하면서 《조선에서는 실업자나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볼수 없으며 누구나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다. 조선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이다.》라고 썼다.

수리아의 한 인사는 조선인민정권은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받고있다. 이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조선의 사회제도가 인민적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돈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조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지방자치기관으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이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를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사회주의혜택속에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세계의 곳곳에서 끝없이 울려나오는 목소리들은 근로하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격찬이다.

본사기자

절세위인들을 보시여 민족의 력사도 빛난다

동명왕릉은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자리잡고있는 고구려시조왕의 무덤으로서 우리 민족의 귀중한 력사유적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주제82(1993)년 5월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세계민방에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에 떠받들려 동명왕릉은 겨레에게 민족적근지와 애국심을 북돋아주는 력사유적으로 훌륭히 개건되었다.

다 아는것처럼 동명왕은 지난날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를 세운 왕이다. 고구려는 동명왕(고주몽)에 의하여 B. C. 277년에 세워진 후 근 천년동안 동방의 강국으로서 위용을 떨치었다.

그러므로 고구려사람들은 강국으로서의 고구려봉건국가를 세우고 그 기틀을 마련한 동명왕을 매우 숭배하고 신적인 존재로 여기었으며 그의 무덤도 특별히 잘 꾸리었다. 원래 동명왕의 무덤은 그

가 활동하다가 사망한 고구려의 첫 수도인 졸본에 있었다. 그런데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수도를 옮길 때마다 시조의 무덤을 함께 옮기는 풍습이 있었다. 그리하여 고구려에서도 5세기중엽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시조 동명왕의 무덤을 현재의 위치에 가져왔다.

고구려사람들은 자기 시조왕릉을 만들고 잘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그후 동명왕릉은 외래침략자들의 파괴도굴로 말미암아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사람들의 시야밖에서 버림받고있던 동명왕릉을 훌륭히 개건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소한의 맹한 추위도, 한여름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10여차례의 현지지도와 수십차례의 강령적교시를 주시며 동명왕릉을 고구려시조왕의 무덤답게 손색없이 꾸리도록 이끌어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쓰신 《동명왕릉개건기념비》

라는 글말이 새겨져있는 왕릉은 160여개의 기단들이 떠받들어올리고있는 무덤과 동명왕의 화상을 비롯한 30여점의 돌조각품들, 고구려인민들의 강의성과 생활풍습을 보여주는 수석점의 미술작품들과 정사를 비롯한 민족고유의 건축물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진주못과 넓은 공지, 아름다운 소나무들과 목지, 화초들로 유원지처럼 꾸려져있다.

동명왕릉에 있는 하나하나의 조각상, 그 어느 시설물에도 나라와 민족의 력사를 귀중히 여기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

공화국인민들은 동명왕릉에 가서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은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친필비를 정중히 세웠다.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빛내이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동명왕릉을 겨레모두에게 민족적근지와 애국심을 북돋아주는 력사유적으로 훌륭히 개건하시기 위하여 이름있는 학자들로 학술연구사업을 하도록 하시고 왕릉형성설계령을 부여주시였을뿐 아니라 그 개건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도들에 대하여 세세히 밝혀주시었다. 뿐만 아니라 동명왕릉을 훌륭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원만히 풀어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동명왕릉은 짧은 기간에 훌륭히 개건되게 되었으며 주제82(1993)년 5월에 드디어 준공하게 되었다.

새로 개건된 동명왕릉은 고구려시조왕의 무덤답게 동방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던 고구려의 기상을 시위하듯 웅장하게 솟아있다.

이처럼 력사의 품과속에서 오래동안 빛을 잃었던 왕릉이 훌륭히 개건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이곳을 찾는 참관자들은 동명왕을 제사지낼 때 제물을 준비하던 제당과 동명왕을 도와 건국에 공헌한 문관과 무관들을 형상한 돌조각상, 동명왕릉앞에 있는 석상과 돌등, 비석 등을 비롯하여 정밀하고 정교하게 개건된 왕릉을 돌아보며 여기에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심혈과 노력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안아본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반만년 오랜 세월애 걸쳐 창조되고 발전하여온 우수한 민족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자주의 강국, 민족의 향취가 넘치는 궁지높은 나라로 세세년년 빛을 뿌릴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력사와 현실은 우수한 민족문화와 전통도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면면히 계승되고 빛난다는것을 뚜렷히 보여주었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반만년의 민족사를 옹호바로 정립해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온 세계에 펼쳐주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 민족의 향취가 넘치는 궁지높은 나라로 세세년년 빛을 뿌릴것이다.

선조들이 창조한 전통적인 민족음식을 찾아내어 인민들의 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다양하게 하는 데서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빛내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평 위워먹는 자리》, 《평대신 닭》, 《평먹고 알먹기》 등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평과 관련한 성구, 속담들이 많다. 《까투리 타령》과 같이 평사냥과 관련한 노래도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그것은 평이 우리 민족의 식생활과 밀접한 련관속에 있기때문이다.

평고기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약리적 효과도 클뿐 아니라 그 맛 또한 매우 좋다.

우리 겨레는 식생활문화를 발전시켜오는 과정에 오래전부터 평고기국수, 평고기향채, 평백숙, 평고기구이 등 여러가지 요리들을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설빙철의 전통음식, 상정음식인 떡국도 평고기를 넣고 끓여야 제격이라고 알려왔다.

이러한 평고기로리는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다심한 손길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평고기로리를 더욱 윤택하게 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과 우수성을 빛내이는 민족전통음식의 하나로 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산애 사슴, 노루, 꿩을 비롯한 유용동물들 많이 번식시켜 국토의 풍치를 더욱 돋구며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제인가 식료품상점들에서

평 같은것도 많이 팔아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어린이들에게 평고기를 먹이면 좋다고 교시하시었고 또 언젠가는 평은 서리가 내린 다음에 잡은것으로 로리를 만들어야 고기맛이 좋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주제109(2020)년 2월 어느날 우리 사람들에게 평고기로 람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우리 사람들은 평고기로 국을 끓여먹지 않으면 국수꾸미나 완자를 만들어 먹는것밖에 모른다고 하시면서 해당 단위에서 평고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소개선전을 잘 할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그리고 다음해 3월에는 평고기로리는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다고 하시면서 평고기로는 인체에 필요한 미량원소와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반면에 지방이 적게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사람의 건강에 아주 좋다고,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평고기를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였으며 약재로도 많이 써왔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평고기로리를 전문으로 만들어 봉사하는 식당을 잘 건설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고기로리를 전문하는 식당에서 평탕과 평백숙을 비롯한 여러가지 평고기로리를 엮바꾸어가면서 내는것으로 주간차별표를 작성하고 그에 맞게 봉사하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다심한 손길이 있어 평고기로리는 자기의 고유한 맛과 향기, 빛깔을 잃지 않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로리의 하나로 사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본사기자 유금주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는 나날에

우리 말로 고쳐진 지명

주제70(1981)년 5월 은덕군(오늘의 경흥군) 읍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모시고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협의회가 시작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제일 오래 생활하였다는 한 일군에게 이 고장 이름을 왜 아오지라고 부르는가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그가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다른 일군이 옛날에 이곳이 너무도 사람 못살고장이라서 석탄을 캐러 오는 풀팔이군들을 보고 《아, 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굳어져서 아오지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전에 탄부들이 오소리같은 땅에 기어 들어가 작동농들의 채찍밑에서 원시적로동을 강요당하다나니 너무도 살기 어려워 지명을 그런 뜻으로 해석한것같은데 사실은 그 이름이 조선봉건왕조 시기전부터 불리워지고있었을 것이라고 하시었다.

이때 한 일군이 협의회장으로 들어와 위대한 수령님께 무엇인가 조용히 설명해드리었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측이 맞았다고, 어쩐지 아오지라는 이름이 우리 말갈지 않아서 평양에 알아보게 했는데 방금 회답이 왔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사실 아오지라는것은 우리 말이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래침략자들이 지어놓고 달아난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두고 부를수 있겠는가고, 이 지방에 아오지라는 말을 붙인 지명과 공장이름들을 다 우리 나라말로 고쳐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주제54(1965)년 3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 양복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인민들의 옷주머니와 가공실재를 로해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한 재단사가 요즘 다른 나라사람들속에서 바지가랭이를 넓게 만들어입는것이 유행으로 되고있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심한 어조로 부름을 따르다가 하여 우리 사람들이 입을 옷까지 외국식으로 만들어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시었다.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사람의 풍습과 기호에 맞고 로동과 활동에 편리하게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바지가랭이를 다룬 나라 사람들처럼 너무 넓게 만들거나 좁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는 대하여 다정히 일깨워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재단사는 옷차림문제가 단순히 옷을 어떻게 차려입는가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는것을 깨우쳐 질감하였다.

주제103(2014)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시공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주시었다.

평양국제비행장으로 들어가는 순안다리입구에 대성산혁명렬사릉처럼 평양국제비행장이라고 쓴 민족적양식의 문주를 세우고 항공역사의 처마밑에 백호무늬같은것을 같은 색으로 약간 두드러지게 장식하는것이 좋겠다. ...

본사기자

이 땅에 차넘치는 사과꽃향기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고산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하여 온 나라 각지의 과수농장들에 사과꽃이 활짝 피었다.

가을에 새빨강고 주먹만큼 큰 사과알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할 그 하얀 사과꽃들을 바라보는 농장원들과 TV를 통해 사과꽃 핀 과수밭전경들을 보며 각지 인민들의 마음속에 절절히 울리는 노래가 있다.

사과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 비날론포포소식 아뢰면 또 오실가 장군님 목매어 부르는 온 나라 아들딸들 오늘도 사무친 그리움 아 끝이 없네 ...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금시라도 사과꽃들이 피어난 과수밭에 들어서시는것만 같아, 가지마다 꽃눈들이 무수히 많고

니 올해에도 과일풍년은 문재없겠다고 하시는데만 같아 천만심장이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고있다.

이 땅에 사는 인민들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목매어 말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우에 인민을 위한 청춘과원을 펼쳐주시었고, 그 누구보다 많고많은 소원을 간직하고계신 위대한 장군님, 그의 소원을 합치고합치면 오직 하나 인민의 행복뿐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과수업을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이 사파나 배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맛있는것을 먹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나라의 과수업발전에서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후대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사회주의무릉도원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온 나라 인민들에게 맞춤형 고 신선한 과일을 마음껏 먹

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에 의하여, 인민을 위한 그의 로고와 헌신에 의해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같은 굴지의 과일생산기지가 일떠서게 되었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찾아오시였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더 많이 먹이게 된것이 너무나 기쁘시어 온 하루를 농장의 포전길에서 보내시었다.

과수업의 비약적장성을 위한 목표를 정해주시고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실현을 위한 사업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 만이 아닌 온 나라의 과원들은 청춘과원, 백과가 주렁지는 락원으로 전변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모든 과수농장들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만들어

온 나라에 사과향기, 과일향기가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 인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고계신다.

인민들이 갖가지 과일을 사할 떨구지 않고 넉넉히 먹으며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확고한 의지이다.

하기에 언젠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시여 눈부리 아득하게 장관을 펼친 과수바다를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깊은 감회에 잠기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에게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오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진다고, 사과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라는 노래구절이 떠오른다고 뜨겁게 말씀하신것 아니라.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장군님의 애국유산, 애민유산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따사로운 햇빛이 있어 온갖 꽃이 만발하듯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주시는 민복의 씨앗을 풍성한 열매로 가꾸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이 땅에는 인민들에게 더없는 행복을 안겨주는 사과바다, 청춘과원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사과꽃, 정녕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이 땅의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전하는 꽃이다. 그래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해마다 피는 사과꽃이지만 그 꽃을 그리도 사랑하는것이여 과일대풍을 안아오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



근로자들의 모습에 비낀 판이한 두 제도

지난 5월 1일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 133돐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공화국에서는 온 나라가 명절일색으로 단장되고 흥성이었다. 그러나 한지맥을 이은 남조선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졌다.

기쁨과 랑만에 넘친 행복의 웃음소리



공화국에서는 5.1절이면 그 어디서나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면서 나라의 주인, 창조와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끝없는 긍지와 기쁨을 느끼는 각계층 근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이번 5.1절에도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수들을 찾아가 애국적 열의와 헌신적노력을 바쳐가는 근로자들을 축하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명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었다. 금성트락도공장, 평양화력발전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하여 온 나라 그 어디서나 벌어진 공장대공장, 직장대직장, 작업반대 작업반사이의 체육경기는 열띤 경쟁열과 승부

심에 웃음소리, 복소리, 땀과 피로로 더욱 고조되면서 명절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누가 이길것인가, 어느 팀이 이길것인가?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속에 경기에 나간 선수들도, 응원자들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축구, 룽구, 배구, 탁구경기도 볼만했었지만 관중의 배를 그려주게 하는 유희오락경기는 또 얼마나 유쾌하고 환희로운 정서와 랑만을 불러오는것인가. 이날 평양과 각지의 극장, 야외무대에서 26명의 로공인종목들이 올라 명절의 환희를 더해주었다.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일떠선 공원과 유원지들에서도 5.1절을 맞는 근로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없이 울려있으며 그들이 즐겁게 나누는 이야기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하였다. 사람들이 모여앉아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의 공통적인 주제는 화성거리에 대한것이였다. 자기와 같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것처럼 희한한 살림집의 주인이 되었다며 눈물을 적시는 사람들, 화성거리가 얼마나 멋있느냐고, 낮에는 낮대로 율리라고 밤에는 밤대로 불빛이 현란하며 감탄하는 사람들, 자기 공장에서는 26명의 노동자들이 화성거리에 새집들이를 하였다며 마치 자기가

새집에 입주한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회열과 환희에 넘쳐 아름다운 꿈과 미래, 더 좋아질 행복한 레일을 그려보았다. 이름도 생김새도 성격도 각이하지만 모두에게서 공통적인것은 기쁨과 랑만에 넘치는 구김없는 웃음발속에 넘쳐흐르는 공정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고 고마운 제도를 받들어 맡은 일을 더 잘하려는 맹세로 충만된 눈빛들이었다. 떠오르는 아침햇빛처럼 눈부시고 밝고밝은 웃음, 이것이 5.1절을 맞는 공화국의 근로자들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슬픔과 분노가 터친 항거의 목소리

남조선에서 5.1절은 근로자들이 분노와 울분을 터뜨리는 날이다. 지난 5월 1일 오전 남강원도 강릉시에서 한 건설로동자 노동자가 유서를 남기고 자기 몸에 불을 달았다. 온몸은 불길에 시꺼멓게 그슬렸고 얼굴은 분노와 고통에 무섭게 이그러져있었다. 윤석열(정권)의 로동개혁과 민주주의의 후퇴, 민생파탄, 검찰독재에 맞서 그는 몸에 항거의 불을 지폈던것이다. 남조선에서 5.1절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온 하루 생존권을 요구하며,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로동자들이 터뜨리는 항거의 불은 지熄되지 않았다. 남조선에서 5.1절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온 하루 생존권을 요구하며,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로동자들이 터뜨리는 항거의 불은 지熄되지 않았다. 남조선에서 5.1절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온 하루 생존권을 요구하며,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로동자들이 터뜨리는 항거의 불은 지熄되지 않았다.

쟁을 벌였다.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맞아지만 근로자들의 명절이 없는 암흑의 땅이 바로 남조선이다. 남조선에서 공장을 돌리고 건물을 짓고 땅을 캐고 농사를 짓는 근로자들은 인간다운 권리, 향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온종일 마스처럼 혹사당하고있다. 근로대중의 이러한 비참한 처지는 윤석열정권이 집권한 후 더욱 악화되었다. 역적배당은 《로동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재벌들, 기업들의 편에서 로동시간을 최대 주 69시간까지 늘리려 하고있다. 그러지 않아도 항거의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작업장에서 기업측이 강요하는 장시간로동에 시달리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실상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남조선에서 열악한 로동조건과 괴로로 사망하는 로동자들의 수가 한해 평균 2 000명이상

달하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로동개혁》의 주요내용들인 《과연근로법》과 기간의 확대, 《주휴수당》폐지, 로동조합법시정(대체근로)허용 등도 모두 《비정규직》과 실업률증가, 임금저하, 노예로동등을 부추기고 로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가로막기 위한것이다. 결국 윤석열정권이 떠들어대는 《로동개혁》이란 로동자들을 삶의 막까지, 죽음에 내모는 《개혁》 아닌 악정인것이다. 투쟁은 분노로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고 그것도 성취하지 않아 생존권을 요구하는 근로대중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파쇼(정권), 악의 무리들을 반대하여 남조선의 로동자들은 5.1절에도 거리에 떨쳐나서 투쟁의 함성을 터친것이다. 그들의 눈에 비친 윤석열

《정권》은 로동자들을 죽이는 살인(정권)이다. 이제 더이상 지켜볼것도 기대할것도 없기에, 분노와 증오가 한계점을 넘어섰기에 누구나 《윤석열퇴진》, 《퇴진이 답이다》를 웨치며 거리거리를에서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 * 5.1절에 공화국과 남조선은 이처럼 판이한 두 풍경을 펼쳐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언제나 밝게 웃는 공화국은 인민이 복을 누리는 나라이고 미래가 양양한 사회이다. 반면에 근로대중이 슬픔과 분노에 차서 《정권》타도를 웨치는 남조선은 암흑의 사회이고 미래가 없는 사회이다. 5.1절. 비록 하루낮, 하루밤이었지만 두 사회는 이처럼 너무나 판이했다. 본사기자 김강철



함께 웃고있을때 사는 행복한 가정

인간을 세상에서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나라, 더군다나 정으로 화목한 사회주의국가에서 두 번다시 생을 받아 안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터치는 고마움의 목소리가 뜨겁게 울려나오고 있다.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때이지만 입원환자들에게 배를 어지는 국가적책은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대동강구역에서 살고있는 서춘렬녀성은 입원생활을 하면서 받아 안은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있는 기간은 1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병원에 입원할 때 난생처음 받는 수술을 이겨낼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연한것이였습니다. 의사, 간호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수술도 성과적으로 끝나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고보니 정말 생각이 깊어집니다. 입원한 때 따뜻한 잠자리와 까마타 공평되는 갖가지 영양식품들, 매일, 매 시각 차베지는 약물들을 보며 한두 번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디. 저를 친혈육처럼 대해 주던 이곳 의료원들은 결코 남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주의대가정의 한식술임을 입원생활을 통해 다시금 새겨안았습니다.》 동대원구역에서 살고있는 박경애녀성도 뜻하지 않은 일로 사정에 처하였던 특류영애군인인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된데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남편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을 때 박경애녀성은 어쩔바를 몰랐다고 한다. 남편이 구급차에 실려 김만유병원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눈

물을 감추지 못하는 그에게 병원의 의료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료원들이 있지 않습니다.》 즉시에 구급대원들이 취해지고 의료원들이 모두 떨쳐나섰다. 환자가 심한 고열로 모래길 때면 그걸에서 꼬박 밤을 새우다싶이 하며 구진히 돌봐준 그 정성과 더불어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박경애녀성은 이리 훌륭한 인간생활의 기사들을 키워준 어머니조국에 고마움의 인사를 울리고싶다고 하였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할 일념을 안고 환자치료에 온갖 정성을 바친 의료원들의 소행을 서성구역에서 살고있는 량춘화녀성도 잊지 못하고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심한 화상을 당하고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량춘화녀성은 억장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낱아준 어머니보다 더 마음쓰고 피로와하며 죽음의 문어구에서 해매이는 아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떨쳐나선 고마운 의료원들이었다. 하기에 량춘화녀성은 전신 60%의 3도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아들이 심한 동통과 40℃를 오르내리는 고열속에 몸바림칠 때 그를 지켜준 사람들이 어머니가 아니었다고, 평양시수급병원의 의료원들의 뜨거운 정성이 없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소생의 기적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절절히 토로하였다. 허천군에서 살고있는 한 처녀도 군병원 의료원들의 고

결한 정신세계에서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의 참모습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뜻밖의 일로 아버지가 심한 부상을 당하고 군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모든 생명이 지르는 외의 때이나 다음이 없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아버지가 의식을 차린것은 7일후였습니다. 그 나날에 목격한 의사선생님들의 불물겨운 헌신, 그 뜨거운 진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차린 후에도 언제 식사를 하고 언제 휴식을 하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치료에 진념하고 있는 의사선생님들의 모습을 대할 때면 고마움의 인사가 눈물이 앞서는 저의 심정입니다. 친혈육보다 더 가슴을 조이고 마음쓰는 정성을 기울이다가도 환자가 소생하면 마치 자기들이 다시 생을 받아안은것처럼 기뻐하는 이런 참된 인간생활의 기사들을 지켜준 우리 제도가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완쾌된 기쁨에 앞서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먼저 토로한 처녀, 그것은 그대로 사회주의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것이다.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것을 미덕으로, 미풍으로 여기고 환자치료에 지극한 정성을 다해가는 미려운 의료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기에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대화원은 이처럼 아름다울것이며 사람들 누구나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나날이 발전품부화되는 공화국의 옷차림문화

* * * 성향을 이룬 《봄철녀성웃진시회-2023》을 보고 * * *

인민들을 새 문화, 새 문명의 향유자로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반발하여 평양에서 《봄철녀성웃진시회-2023》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경공업국, 은하무역국, 봉화무역국 등 전국의 옷생산단위들과 각지 양복점들을 비롯한 피복생산단위들에서 만든 수많은 제품들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에서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은것은 년별별, 직업별, 유색특색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면서도 녀성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세련되게 만든 피복제품들이었다. 조선포복공업협회의 한 일군은 이번 전시회준비과정에서 피복제작자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착상력이 높아진것이 눈에 띄이게 알린다고 말하였다.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 경공업국, 오일경제기술교류사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다양한 계절옷들을 많이 출품하였는데 색이 은근하고 형태가 새로우며 개성이 뚜렷한것으로 하여 하나하나의 옷제품들이 특색있을뿐 아니라 고상하고 문명한 새 유행을 창조하려는 제작자들의

열의가 뚜렷이 엿보였다. 평안북도, 황해남도, 남포시를 비롯한 많은 피복생산단위들에서도 질적으로 뛰어난 경쟁이 활발히 벌어졌고 보다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설계방법을 받아들여 땀이었고 세련된 옷들을 출품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은하무역국과 대성무역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전시구역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하기에 전시회장을 찾은 참관자들은 규모와 형식, 내용에 있어서 훌륭하고 화려한 《봄철녀성웃진시회-2023》은 나날이 발전품부화되고 있는 공화국의 옷차림문화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볼수 있게 하는 특색있는 전시회라며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계절에 따라 나이와 몸매, 기호에 맞게 시대적미감과 민족적인 형식을 배합하면서도 우아한 세련미를 살려주는 밝고 부드러운 색깔의 양복, 달린외투 등 다양한 계절옷들은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여러 웃진시회에도 참가했었지만 《봄철녀성웃진시회-2023》만큼 화려하고 멋있는 웃진시회는 보지 못하였

습니다. 우리 녀성들의 옷차림과 몸단장에 필요한 모든것이 최상의 수준에서 전시되고 녀성들의 기호와 심리에 맞게 전시회장이 화려하게 꾸러진것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녀성들의 기호와 취미, 세계적인 피복공업의 발전추세에 맞게 선진적인 옷설계와 가공기술로 제작한 다종다양한 새형의 옷들이 출품된 전시회를 돌아보고 금은피복공장의 한 일군이 하는 말이다.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산다는 배영희녀성은 《그저 감동, 경탄뿐입니다. 옷제품의 가치수는 수천인데 그 하나하나가 모양도 색깔도 각자 이니 어는 옷을 플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옷차림문화를 현대적수준으로 발전시켜 우리 녀성들을 세계적인 유행의 선도자, 향유자들로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이 가슴에 마쳐와 걱정을 금할수 없습니디.》라고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전시회를 보기 위해 저 멀리 합동에서 왔다는 한 녀성은 이번 전시회에 뜨개옷들이 많이 출품되었는데 색

이 은근하며 짜임과 무늬가 다양하고 특색있다고 하면서 우리의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제작자들의 열의가 엿보인다고 하였다. 모든것이 황홀하고 훌륭하여 걸음마다 감탄을 주는 이번 녀성웃진시회를 일생 잊을것같지 못하다는것이 참관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다. 전시회장에는 국부망을 리용한 자료보급지원체계가 구축되어있어 참관자들은 곳곳에 설치된 다기능전자현시판을 통하여 출품된 제품들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녀성들이 좋아하는 옷형태, 색깔 등에 대한 수요조사도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흥흥식



누구나 그러하듯이 명절날이나 휴식일이면 세간난 자식들은 자녀들을 앞세우고 부모들을 찾아간다. 온 가족이 모여앉는 이날에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자식들을 보며 《주름살》을 퍼는 로인내외일것이다. 《형님! 지금껏 부모님들을 모셔왔는데 이제는 우리 집에서 모시려고 합니다.》라며 거기에 상을 들쳐들고 오는 아들, 딸들이 있다. 《그런 아들 딸들이 옛날부터 부모는 만사가 모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말라든 밭막아버리는 만형님께라도 이야기하였다. 《이제 이 막내도 효도를 할수 있게 형님들이 좀 양보하십시오. 뛰니뛰니해도 부모님들의 사랑은 내게 제일 많이 받았는데 색이 받은 집에서 잘 모시겠습니다.》 세 자식들이 《다들질》을 보고있던 아버지가 손을 내

오직 우리 사회, 우리 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행복한 《걱정》, 즐거운 《걱정》이었다. 문득 나의 뇌리에선 언제인가 신문에서 보았던 남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색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을 폭로하는 글들이 아프게 파고들었다. 오복을 뜻하는 부모들이 시

피되고 몸서리치는 참상이 일어나는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것이다. 그런데 우리 공화국에서는 혈육간의 사랑과 정이 날로 더욱 두터워지는것은 물론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이 미덕으로, 미풍으로 되고있는 것이다. 덕과 정으로 맺어진 인간관

오늘도 내 심장에 새겨져 울리고있다.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 걱정하는 문제를 말하면 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헌신의 길을 걸으시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불같은 사랑에 의해 말아내는 미재과학자거리의 희한한 살림집들, 돌베는 려명거리의 훌륭한 살림집을 그리고 막내네는 송화거리의 궁정같은 살림집을 한흔 내지 않고 받아안고 행복을 누리고있지 않나. 너희들이 고마우신 우리 원수님의 은덕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지 못할가봐 늘 마음을 놓을수 없다.》 아버지의 뜻깊은 말을 들으며 우리 형제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그로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귀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심신을 다 바쳐 일할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리철준

친혈육보다 더 마음쓰고 피로와하며 죽음의 문어구에서 해매이는 아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떨쳐나선 고마운 의료원들이었다.

정말 생각이 깊어집니다. 입원한 때 따뜻한 잠자리와 까마타 공평되는 갖가지 영양식품들, 매일, 매 시각 차베지는 약물들을 보며 한두 번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디. 저를 친혈육처럼 대해 주던 이곳 의료원들은 결코 남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주의대가정의 한식술임을 입원생활을 통해 다시금 새겨안았습니다.》

조국해방의 기치아래 온 겨레를 묶어세우시어

5월 5일은 우리 나라에서
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가 창립된 때로부
터 87돛이 되는 날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겨
레는 항일대전의 나날 각
각층의 반일애국력량을 하나
로 묶어세워 조국해방의 성
업을 기어이 이룩하신 위
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
의 업적을 가슴깊이 돌이켜
보고 있다.

《아시아의 맹주》로 자
라던 일제에게 빼앗긴 나
라를 다시 찾자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조선사람들을 반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묶어
세워야 하였다.

이것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
일혁명투쟁의 나날 민족
의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
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셨었다.
자주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이 민족 단합을 바탕으로
하는 전 민족행에 있다는
것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지
천 시기부터 견지해오
신 것으로 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적극 벌려오시는 과정에
쌍신인 귀중한 성과와 경
험을 토대로 주체25(1936)
년 2월 남호

두회의에서 상설적인 반
일민족통일전선체를 결
성할 때에 대한 탁월한
방향을 제시하셨었다.
바로 이때부터 조국광
복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본격화되
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
명한 령도밑에 주체25(1936)
년 3월에는 조선인민
혁명군의 우수한 지휘
성원들과 명망있는 애
국인사들이 망라된 조
국광복회창립준비위원
회가 결성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행군과 전투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조국광복회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구상하고
한자 두자 친히 작성하
셨었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서는 마침내 주체25(1936)
년 5월 5일 무수한 동
강에서 역사적인 조국
광복회창립대회를 여
시고 상설적인 반일민
족통일전선체이며 강
력한 지하혁명조직으
로서의 조국광복회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
포하셨었다.

창립대회에서는 우리
민족에게 재정의 희망
을 안겨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조국
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셨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
에서는 중근미래의 해
결을 조선

민족앞에 나선 일차적
과제로 제기하고 인민
들에게 민주주의적자
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의 민주주의적발
전을 이룩하기 위한 과
업과 해외교포들을
유호하기 위한 과업
을 제시하였다.
강령에서는 또한 혁
명적인 군건설과 사회
문화적 과업 그리고 대
외적과업을 제시하였
다.

조국광복회창립선언
에는 조국해방을 위한
정적정치투쟁과 투쟁
과업이 밝혀지고 도시
와 농촌의 모든 곳에서
즉시 조국광복회조직
을 결성하며 《조국광
복회10대강령》의 기
치아래 전 민족이 단
합하여 조국해방을 위
한 투쟁에 떨쳐나설
데 대한 호소가 담겨
져있다.

우리가 모든 차별을
타도하고 늙은이와 젊
은이, 남자와 여자 할
것없이 돈있는 사람
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
고 능력이 있는 사람
은 능력과 지혜를 바
치며 2천만 민중이 일
심동체가 되어 반일
조국광복전선에 총동
원되리라 일제놈들은
피멸망당하며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
은 이룩될 것이라고
한 조국광복회창립선
언은 나라의 해방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의 심금을 울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국광복회조직을
창립하신 후 조국광
복회조직을 확대강화
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밀고나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선인민혁명군
병사, 지휘관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민을 반일민족통
일전선의 위력이 얼마
나 대단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전민적적인 통일전
선조직체 조국광복회
를 혁명적의 힘으로
창립하고 일제와
외국의 관료사대주의
적세력을 타도하여
조국광복회조직에서
주요역할을 담당하
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항
일의 녀성영웅 김
정숙녀사께서는 주
체26(1937)년 장백
현 도천리와 국내
신안리에서 조국광
복회조직을 창립하
시면서 동산

을 울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국광복회조직을
창립하신 후 조국광
복회조직을 확대강화
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밀고나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선인민혁명군
병사, 지휘관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민을 반일민족통
일전선의 위력이 얼마
나 대단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전민적적인 통일전
선조직체 조국광복회
를 혁명적의 힘으로
창립하고 일제와
외국의 관료사대주의
적세력을 타도하여
조국광복회조직에서
주요역할을 담당하
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항
일의 녀성영웅 김
정숙녀사께서는 주
체26(1937)년 장백
현 도천리와 국내
신안리에서 조국광
복회조직을 창립하
시면서 동산

을 울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국광복회조직을
창립하신 후 조국광
복회조직을 확대강화
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밀고나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선인민혁명군
병사, 지휘관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민을 반일민족통
일전선의 위력이 얼마
나 대단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전민적적인 통일전
선조직체 조국광복회
를 혁명적의 힘으로
창립하고 일제와
외국의 관료사대주의
적세력을 타도하여
조국광복회조직에서
주요역할을 담당하
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항
일의 녀성영웅 김
정숙녀사께서는 주
체26(1937)년 장백
현 도천리와 국내
신안리에서 조국광
복회조직을 창립하
시면서 동산

을 울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국광복회조직을
창립하신 후 조국광
복회조직을 확대강화
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밀고나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선인민혁명군
병사, 지휘관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민을 반일민족통
일전선의 위력이 얼마
나 대단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전민적적인 통일전
선조직체 조국광복회
를 혁명적의 힘으로
창립하고 일제와
외국의 관료사대주의
적세력을 타도하여
조국광복회조직에서
주요역할을 담당하
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항
일의 녀성영웅 김
정숙녀사께서는 주
체26(1937)년 장백
현 도천리와 국내
신안리에서 조국광
복회조직을 창립하
시면서 동산

랑림, 부진, 신흥, 북청, 리원,
단천, 허천 등 국내의 여러
지역에 진출하시어 조국
광복회조직을 꾸리시
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었다.

조국광복회조직은 창
립후 북부조선인민대
를 비롯하여 서부, 중부,
남부조선인민대를 포
괄하는 전국각지에 확
대되어 동민족대를 비롯
하여 조선사람이 많이
사는 만주의 넓은 지역
과 일본의 여러 지방에
까지 튼튼히 뿌리박혀
있었다.

당시 일제가 저들이
타도해 내 국내의 반일
지하조직만 해도 180
여 개나 되고 조직적력
량이 50만인 넘는다고
비평을 울린 사실은
반일민족통일전선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
하였는가를 잘 보여
주고있다.

전민적적인 통일전
선조직체 조국광복회
를 혁명적의 힘으로
창립하고 일제와
외국의 관료사대주의
적세력을 타도하여
조국광복회조직에서
주요역할을 담당하
도록 하였다.

우리의 겨레는 각계
각층의 애국력량을
항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워 조국해방
의 역사적업무를 이
룩하신 위대한 수령
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들에게 길이 전
해주시어

본사기자 박철남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주체36(1947)년 11월 27
일이었다.
이날 오전 중앙당학교(당
시)의 과정안을 료해하
시던 위대한 김일성주
석님께서 이 학교 교
장을 집무실로 부르시
었다.

교장과 반갑게 인사
를 나누시고 자리를 권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서는 심중하신 어조로
과정안작성에서 나
라난 결함에 대하여
지적하셨었다.

교육사업에 대한 경
험이 부족하고 남의
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기적으로 모방하는 데
습관된 일부 일군들
의 그릇된 사고방식
으로 하여 과정안은
거의 모든 것이 외국
의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지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이렇게 교시하시
었다. 《당학교교
과안에는 외국적이
거의 전부이고 우리
나라의 것은 아주
적극 배정되었습
니다.

새 과정을 건국
정지일군들을 양성하
는 당학교의 국외의 선
진경험도 많이 가르
쳐주어야 하겠지
만 우리 나라의 것
을 더 많이 가르
쳐주어야 합니다.》

그러시며 일제
통치시기 일본놈들
이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악랄
하게 책동하였기
때문에 조선사람
들이 자기 나라와
인민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조선사람이 조
국을 모르고서
어떻게 세 나라
를 세우겠는
가고 가슴 아프
신 어조로 말씀
하셨었다.

이미전에 벌써
조선력사와 조선
지리를 잘 가르
치신 것은 사람
들에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민족적
정열을 높

여주어 그들을
혁명투쟁에 적
극 나서도록
하는 데서 중요
한 의의를 가진
다고, 혁명가
들이 조선인민
의 유구한 투
쟁력사와 지
리를 잘 알
도록 하기 위
한 교양사업을
조직행하
야 한다고 그
토록 강조하
신 수령님이
시었다.

그러나 그의 가르
침을 받아안고
고도 기계적인
사고방식으로
매달려 무리
대고 큰 나라
의 것을 숭배
하여 조선경
제지리도 세
계정치지도
과목에 포함
시키고 시간
배정수도 10
배나 차이나
게 정한 자기
들의 그릇된
관점에 교
장은 얼굴
을 붉히었다.

위대한 수령
님께서는 언
제나구신 어
조로 이렇게
교시하시
었다. 《간부
들에게 조선
력사를 비롯
하여 조선지
리를 잘 알
도록 가르
쳐주어야 합
니다.》

계속하시어 수
령님께서는
조선경제지
리를 세계
정치지도과
목의 한 부
분으로 취급
하고 그 시
간도 겨우 8
~10시간
밖에 할당
되지 않았
는데 이것
은 아주 잘못
된 것이라고
엄하게 지
적하셨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과정을 다시
바로 작성
하겠습니다.》
교장의 이
러한 대답
을 들으신
위대한 수
령님께서
는 조선경
제지리를
하나의 독립
과목으로
가르쳐주
어야 하며
간부들이
이것을 잘
알도록 해
야 하겠다고
다시금 이
르셨었다.

이렇게 되어
외국의 것이
기본으로
되었던
중앙당학교
의 과정안은
우리의 것이
로 바뀌어
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우리가 가르쳐주어야 할 것이 많다

수기 파사로운 품속에서 백살장수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은 내
한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
이었습니다. 온
나라 일을 돌
보시느라 그
처럼 바쁘신
경애하는 김
정은원수님
께서 백
번째 생일
을 맞으시
는 것을
잊지 않고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 주
셨던것입
니다.

그이의 육친적
사랑과 배려
가 어려없는
생일상을
받아안고
나는 이 세
상 영광과
행복을 혼자
독차지한
것만 같아
눈물을
뜨겁게
치고 온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
습니다.

남조선의 감옥
에서 《승
귀는 화석》
으로 불리
우던 내가
만사
의 축복
속에 백
살장수
를 누
려가는
오늘의
이 행
복을
생각
하면
꿈만
같습
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조
국해방
전쟁
시기 의
용군에
입대하
여 싸
운 나
는 공
화국의
품속
에서 보
낸 꿈
만
같은
나날
에 조
국은
단순
히 태
를
묻고
나서
자란
고향
산천
이 아
니라
참된
삶이
꽃피
고 후
손만
대의
행복
이 영
원히
담보
되는
곳이
며 그
것은
수령
에 의
하여
마련
된다
는 것
을. 위
대한
수령
님의
품이
야말로
진정
한 조
국이며
그 품
을 지
켜 싸
우는데
삶의
보람
과 긍
지

가 있다는
것을 온
넋으로
체득하
고 있습
니다.
하기에
후날 남
조선감
옥에서
38년
간이라는
기나긴
나날
같은
고문과
악형을
당하
면서도
굴하지
않고 승
리자가
될 수
있었
습니
다.

1년 10
년맞잡
이 길고
도 긴
옥중
생활기
간 원수
들은
어떻
게 하
나 우리
를 굴복
시키려
고 상
상을
초월하
는 것
같은
고문
을 다
들었
습니
다. 교
형리
들의
악착
한 고
문으로
뼈가
부스
러지고
살점이
떨어
져나
가던
그 모
진 정
신육
체적

고문을
한두마
디 말로
다 표
현할
수 없
습니
다.
그러나
모진
고문이
가해
지고
전향
을 강
요할
때마다
나는
위대
한 수
령님
의 품
속에서
인간
의 참
다운
보람
과 긍
지를
느끼
며 행
복하
게 살
아온
나날
을 더
욱 보
며 강
인하
게 이
겨냈
고 목
숨도
다
키운
신
님, 조
국을
지켜
원수
들과
결
결히
맞서
싸웠
습
니
다.
이런
우리
비
전향
장수
자들
을 언
제나
잊지
않고
기
쁘게
사
회주의
조국
의 품
속
에 데
려오
신분
은 위
대한
김정
일장
군님
이시
었
습
니
다.

고때로부터
꿈같은 나날들이
흐르고흘러 어느덧 2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남조선의 감옥에서 보낸 38년이 죽음과 고통의 나날이었다면 조국의 품에 다시 안겨 보면 23년은 꿈만 같은 행복의 나날이었습니다.

0.75%의 비중은 감방속에 갇혀 《혁명인생》으로 살아온 우리 비전향장수자들 사랑을 사의 품에 안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어 우리 장군님 아니시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가 하고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혁명적진심을 끝까지 지켜싸운 비전향장수자들을 모두 금방석에 앉히고 싶다고 하시며 우리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여생을 보내도록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는 정과 사랑을 안겨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온갖 악형으로 얻어든 비전향장수자들의 가슴을 따뜻이 녹여주시고 철따라 몸이 썩어가는 옷들과 갖가지 식료품들 그리고 산삼, 복용 등 귀한 보약들도

고때로부터
꿈같은 나날들이
흐르고흘러 어느덧 2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남조선의 감옥에서 보낸 38년이 죽음과 고통의 나날이었다면 조국의 품에 다시 안겨 보면 23년은 꿈만 같은 행복의 나날이었습니다.

0.75%의 비중은 감방속에 갇혀 《혁명인생》으로 살아온 우리 비전향장수자들 사랑을 사의 품에 안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어 우리 장군님 아니시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가 하고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혁명적진심을 끝까지 지켜싸운 비전향장수자들을 모두 금방석에 앉히고 싶다고 하시며 우리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여생을 보내도록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는 정과 사랑을 안겨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온갖 악형으로 얻어든 비전향장수자들의 가슴을 따뜻이 녹여주시고 철따라 몸이 썩어가는 옷들과 갖가지 식료품들 그리고 산삼, 복용 등 귀한 보약들도

고때로부터
꿈같은 나날들이
흐르고흘러 어느덧 2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남조선의 감옥에서 보낸 38년이 죽음과 고통의 나날이었다면 조국의 품에 다시 안겨 보면 23년은 꿈만 같은 행복의 나날이었습니다.

0.75%의 비중은 감방속에 갇혀 《혁명인생》으로 살아온 우리 비전향장수자들 사랑을 사의 품에 안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어 우리 장군님 아니시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가 하고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혁명적진심을 끝까지 지켜싸운 비전향장수자들을 모두 금방석에 앉히고 싶다고 하시며 우리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여생을 보내도록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는 정과 사랑을 안겨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온갖 악형으로 얻어든 비전향장수자들의 가슴을 따뜻이 녹여주시고 철따라 몸이 썩어가는 옷들과 갖가지 식료품들 그리고 산삼, 복용 등 귀한 보약들도

고때로부터
꿈같은 나날들이
흐르고흘러 어느덧 2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남조선의 감옥에서 보낸 38년이 죽음과 고통의 나날이었다면 조국의 품에 다시 안겨 보면 23년은 꿈만 같은 행복의 나날이었습니다.

0.75%의 비중은 감방속에 갇혀 《혁명인생》으로 살아온 우리 비전향장수자들 사랑을 사의 품에 안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어 우리 장군님 아니시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가 하고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혁명적진심을 끝까지 지켜싸운 비전향장수자들을 모두 금방석에 앉히고 싶다고 하시며 우리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여생을 보내도록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는 정과 사랑을 안겨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온갖 악형으로 얻어든 비전향장수자들의 가슴을 따뜻이 녹여주시고 철따라 몸이 썩어가는 옷들과 갖가지 식료품들 그리고 산삼, 복용 등 귀한 보약들도

고때로부터
꿈같은 나날들이
흐르고흘러 어느덧 2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남조선의 감옥에서 보낸 38년이 죽음과 고통의 나날이었다면 조국의 품에 다시 안겨 보면 23년은 꿈만 같은 행복의 나날이었습니다.

0.75%의 비중은 감방속에 갇혀 《혁명인생》으로 살아온 우리 비전향장수자들 사랑을 사의 품에 안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어 우리 장군님 아니시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가 하고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혁명적진심을 끝까지 지켜싸운 비전향장수자들을 모두 금방석에 앉히고 싶다고 하시며 우리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여생을 보내도록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는 정과 사랑을 안겨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온갖 악형으로 얻어든 비전향장수자들의 가슴을 따뜻이 녹여주시고 철따라 몸이 썩어가는 옷들과 갖가지 식료품들 그리고 산삼, 복용 등 귀한 보약들도

안겨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사랑은 비전향장수자들의 높고 병든 몸에 생의 활력을 안겨 주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그 사랑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의하여 그대로 따스히 흘러들고 있습니다.

제6차 전국로병대회의 연단에서 우리 당은 로병대회의 앞에서도 로당인정하여 영광스러운 한생을 빛내어나가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모실것이며 동지들의 건강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뜨겁게 새겨안고며 저는 눈물을 적시었습니다.

로당당세월과 더불어 장수복을 누리고있는것만도 분에 넘치는데 얼마전에는 백번째 생일을 맞은 저에게 사랑의 생일상까지 보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진정 절세위인들의 열화의 사랑이 있어 비전향장수들이 지옥에서 락원으로 인생전환을 할수 있었고 오늘은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서 제가 백살장수자로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비전향장수자들의 삶의 인이시고 운명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비전향장수 한장호

이역의 하늘가에 휘날리는 공화국기

— 공화국창건 75돛을 맞으며
도표에서 경축대공원이
진행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
건75돛경축 대공원 《우리
의 국기》가 오는 9월 6
일 일본 도표에서 진
행된다.

공원은 총련 문예동중
앙의 주
관관
에 창
작, 조
직되
며 공
원
에
는
금
강
산
가
극
단
과
도
표
조
선
가
극
단
을
비
롯
한
예
술
인
들
과
문
예
애
호
가
들,
각
급
조
직,
단
체
에
속
하
는
동
포
들
과
학
생
들
이
출
연
하
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75돛경축 대공원 《우리
의 국기》도표에서 진행되
는 동중
앙 상
임위
원들,
총
련의
여
러
단
체
예
술
인
들
이
모
임
에
참
가
하
였
다.

문예동중
앙 부
위원
장
이
대
공
원
의
조
직
요
강
에
대
해
보
고
하
였
다.
그
는
대
공
원
《우리
의 국
기》
의
목
적
에
대
해
우
선
경
사
스
러
운
공
화
국
창
건
절
에
즈
음
하
여
총

련예술
인들과
동포들
속에서
위대
한 김
일성
주석
님의
건국
업적
과 위
대한
대원
수님
께서
재일
동포
들과
맺은
형
연의
정, 어
머니
조
국을
우리
러
애국
애호
하는
동
포들
의 투
쟁의
삶을
되새
기며
주
체예
술의
화
폭으로
공화
국의
존
엄을
해
외교
포도
단체
로서
의 본
태를
더욱
부
터
기
어
파
시
하
는
데
이
고
또한
공
원
을
문
예
동
중
앙
과
동
포예
술
인
들
은
물
론
동
포
대
합
창
단
을
비
롯
한
지
방
의
각
계
각
층
동
포들이
출연
하는
동
포참
가
행,
동
포주
인
행
의
공
원
도
조
직
진
행
하
로
서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강
령
적
시
한
에
새
겨
주
신
소
고
한
뜻
대로
동
포
사
회
가
언
제
나
우
리
노
래,
우
리
장
단,
우
리
출
로
홍
성
이
게
하
며
민
족
문
화
운
동
을
활
성
화
하
는
중
요
한
계
기
를
마
련
하
는
데
있
고
말
하
였
다.

이러한
공원
조직
사업
과 관
련한
토
의가
있
었다.

본사기자

지배와 굴종, 범죄의 역사는 감출수 없다

남조선에서 범죄적인 《단독정부》의 조작

미국은 남조선
을 강점한 후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적
인 통일적
중앙정부를
수립을 가
르막으려
고 조선사
람의 《정
치참어》
를 표방하
면서 1947
년 6월 《보
통선거법》
을 조작하
는 방법으로
《단독선
선거》준
비를 갖추
었으며 8
월에 이른
바 《과도
악형》이
라는 것을
내놓았다.
뿐만아
니라 《군
정법령》
141호를
통하여 미
군정의 간
판마저 《
과도정부
》로 바꾸
어달라고
쑤미공
동위원
회사
업을
과
탄
시
켰
다.
그러나
하
면
미
국
도
리
승
만
연
도
를
내
세
워 《반
탁》, 《반
공》갑
빠니
야를
벌리
고
조선
문
제
를
유
엔
에
끌
고
갔다.
유엔
헌
장
을
란
독
하
게
유
리
하
면
서
조선
문
제
를
유
엔
에
끌
고
간
미
국
의
속
심
에
대
하여
미국
신
문
《뉴
욕
저
널
앤
드
아
메
리
칸
》은
미국
무
장
부
대
로
부터
입
수
한
《권
위
있는
보
고》에
근
거
한
것
이
라
고
하
며
《38°
선
이
북
에
놓
여
있는
조선
의
절
반
을
될
수
있
는
데
로
빨
리
회
복
하
려
하
는
기
도
에
있
어
서
우리
의
후
원
을
받
게
될
남
조선
(정
부)
를
수

립》하는
것이 그
진
의
도
라
고
론
평
하
였다.
미국
은
강
요
와
희
의
의
방
법
으로
유
엔
을
저
들
의
대
조
선
친
락
정
책
에
복
종
시
키
며
1947
년 11월 14
일 유엔
총회
제2차
회의
에서 《유
엔조선
위
원
단》을
조
작
하
고 이
기
구
에
조선
에서
실
시
되
는 《선
거관
리하
여》를
비
롯
한
광
범
한
《권
한》을
부
여
할
데
대
한
결
의
를
강
압
통
과
시
켰
다.
1948
년 1월 미
국의 대
조선
침략
도
주
인 《유
엔조선
위
원
단》의
허
수
아
비
무
리
들이
서
울
에

추악한 사대매국노의 굴종행각, 핵전쟁행각

《전쟁먹구름 몰고오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집에서 새는 바가지 틀에 나가서도 생각하고 윤석열역도가 미국행각의 나날에 저지른 엄청난 죄악은 남조선 각계의 격렬한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은 이번 미국행각에 대해 《국빈환대》, 《최대의 외교성과》, 《(한)미협정확정》이라고 미화분식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의 정세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층은 역도의 미국행각을 《굴종행각》, 《핵전쟁행각》, 《빈손결혼》, 《적자외교》, 《최대의 외교참사》 등으로 강력히 단죄규탄하고있다.

너무도 당연한 비난이며 단죄이다. 윤석열역도가 행각기간 상전과 모의하고 발표한 그 무슨 《위성통신언》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역적패당은 이번엔 날로 고도화되고있는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에 《대응》한다면서 상전과 《협업》 통로를 개설하고 《확장억제력》을 확대한다는 이른바 《위성통신

언》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윤석열역도가 미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핵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사이에는 복첩핵전쟁도발기도를 드러낸 수많은 회담과 밀담들이 진행되었고 그때마다 호전적인 문서장들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공화국을 핵공격대상으로 정식화하고 미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는 미국상전과 《전략적사이버안보협력》, 《미일남조선 3자협력확대》, 공화국에 대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 핵전쟁연습의 정례화를 합의한 《공동성명》 역시 위협천만하고 도발적인 남공화국핵전쟁용계의 집적적인 발표이다. 역도는 이번엔 《위성통신언》과 미국상전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반공화국침략기도, 핵전쟁기도를 명백히 함으로써 천하에 들도 없는 대결미치광이, 호전광의 추악한 정세

를 명백히 드러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역도의 미국행각을 평가가 아니라 대결과 핵전쟁을 선택한 행각이라고 규탄배격하고있다.

역도의 미국행각은 남조선경제의 대미예속을 더욱 심화시키고 미국에 막대한 경제적리득만 남겨버린 조공행각이기도 하다.

윤석열역도는 이번엔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가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인한 남조선경제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겠다고 환소리를 쳤다.

하지만 미국행각기간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 남조선이 입고있는 엄청난 경제적피해를 가시기 위한 그 어떤 안도 내놓은것이 없고 도리어 남조선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할것을 강박하는 상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윤석열역도의 미국행각은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키치는커녕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

는 일만 거듭어준 행각, 미국은 역시 《법의 아가리》라는 인식을 굳혀준 행각, 영어로 노래를 불러주고 기타 하나와 등진 한일을 받은 《빈털터리결혼》, 《피조국의교》에 불과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역도의 미국행각이야말로 특등중미주주의 매국행각, 굴종행각이고 조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핵전쟁행각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침략적인 외세에 간과 쓸개는 물론 영토까지 다 꺼내주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고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윤석열역도와 같은 최세의 사대매국노, 만고역적을 그대로 뒤면 남조선인민들이 치욕과 불행,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고 핵전쟁의 참화도 들뜨게 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 치욕의 화근이며 민족의 재앙거리인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민족의 존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윤석열역도의 미국행각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비난과 분노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말 《전국민중행동》은 서울에서 《평화보다 대결과 전쟁을 택한 (한)미정상 회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역도가 미국상전과 함께 발표한 《위성통신언》에 대해 《대북핵압박, 군사위협을 강화하는 선언》이라고 하면서 《이번 회담이 포괄적으로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한)미일군사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미, 일, 한) 대 (북, 중, 러)의 진영대결을 가속화하고있다. 이는 조신반도주변의 군사적긴장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결탁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규탄하였다.

《진보로대》 상임대표와 《민주로총》 산하 《금속로조》 부위원장장을 비롯한 기자회견참가자들도 《윤석열역도가 바이트알에서 박수받고 노래 부른 값으로 인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나 크고 막중하다.》, 《윤석열역도의 대미굴종외교에 남조선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로동자, 민중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울부짖을 때, 살기 힘들어 죽음을 택하고있을 때 (대통령)이란 사람은 전 쟁위기를 몰고갈 미국의 (핵우산) 담보를 받았다고 바이든과 어깨동무하고 즐겁게 가요를 불렀다.》고 개탄하면서 《윤석열에게 남조선을 맡겨둘수가 없다. 윤석열의 외교제단, 외교참사 더 이상 참을수 없다.》, 《윤석열(정권) 굴종외교 규탄한다!》, 《전쟁먹구름 몰고오는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전쟁위기를 자처하는 윤석열(정권) 심판하자!》고 웨치했다.

이번 미국행각을 통하여 철저한 친미주주, 추악한 사대매국노, 극악한 전쟁대결광으로서의 정체를 더욱 날날이 드러낸 윤석열역도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분노와 반윤석열투쟁열기는 날 갈수록 더욱 고조될것이다.

본사기자



자멸을 재촉하는 보강놀음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에 준비 백산한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취약성이 날날이 드러난 이른바 《한국형3축라격체계》를 보강하는 놀음에 매달리고있다.

역적패당은 현재의 《3축라격체계》는 지휘 및 운용에서 불합리한 점들이 많고 작전수행에서의 효과성도 담보할수 없다고 하면서 지휘구조와 운용개념, 작전수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보강을 위한 첨단무기개발 및 도입에 열을 올리고있다.

공화국에 비한 저들의 군사적력세를 모면하고 남조선내부에서 날로 높아가는 《안보불안》을 높였으며 반공화국침략전쟁준비를 다그쳐보려는 무분별한 군사적당동들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떠드는 《3축라격체계》라는것이 공화국의 가공할 군사적위력에서 무용지불이나 다름없다는것은 군사에 대한 초보적

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는것이다.

특히 《한국형3축라격체계》라는것이 실현되고 고도화된 공화국의 핵전쟁억제력을 제대로 탐지, 추적도 할수 없고, 타격은 더욱 난망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것은 최근 남조선호전광들의 전쟁대결행동과정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군사적허점들을 통해 명명백백히 실증되었다.

하기에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은 물론 각계층속에서까지 《한국형3축라격체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의 미사일공격앞에 사실상 무용지불이나 다름없다. 다종다양한 북의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감시하고 대응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의 《확장억제력》강화로도 북의 핵미사일지대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공화국의 군사적력세를 모면하고 남조선내부에서 날로 높아가는 《안보불안》을 높였으며 반공화국침략전쟁준비를 다그쳐보려는 무분별한 군사적당동들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떠드는 《3축라격체계》라는것이 공화국의 가공할 군사적위력에서 무용지불이나 다름없다는것은 군사에 대한 초보적

치는 무모하고 무지한 망동을 일삼는대로 나가자마련이다.

반공화국전쟁대결행동에 미쳐도 더러게 미친 남조선호전광들의 《한국형3축라격체계》보강놀음이 바로 그러 한것이다.

《한국형3축라격체계》보강이니, 첨단무기개발 및 도입이니 하며 멋있이 날뛰면서 제 죽을줄도 모르고 불속에서 뛰어드는 부나비처럼 자멸의 길로 가는 윤석열역적패당이 실로 가련하기 그 지없다.

오영철

남조선에서 다음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있다.

《정의당》소속 청년정치인들이 고집적인 거대량당체제를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새번데기 권력》이라는 모임을 조직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정치권의 여러 인물들이 제3의 정치세력출현에 동조해나서고있는것이 그것을 말해 준다.

남조선에서 《국회》의원선거를 1년이나 앞두고 신당창당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것은 여야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환멸이 극도에 달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여당이 라고 하는 《국민의 힘》안에서는 친윤석열파가 집권자를 등에 업고 비윤석열파세력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눌러버리고 극우보수세력까지 배척하여 내부갈등과 알뜰이 심화되고있다.

제야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당대표의 부정부패의혹으로 내부혼란이 도 있었습다.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든것이 지금의 로리점주인 김기현이였습니다.

윤주인에 의해 발탁된 그 녀석의 초기 생각은 바로 이 러했습다.

(통산의 《석열당》과 《건회》도 망했지, 저주받은 그 비범함으로 로리점이 죽창잡이 되겠지, 이제 내가 이 여 의도에서 진정한 로리로 통산도 살리고 로리점의 부흥도 실현할테대.》

그럼 《국민의 힘》로리점의

심화되는데다 최근에는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간 《불법정치자금사용의혹》까지 터져 걸찰수사를 받고있다.

진보정당으로 자처하는 《정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연합을 거절하고 이 당의 대표를 공격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민주개혁세력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도란에 빠진 민생은 안중에 없이 자과세력확

장과 권력쟁탈을 위한 추악한 싸움만 벌이고있는 여야 정당들에 대한 민심의 환멸과 배척기운이 날로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세력, 정치 무관심층을 의미하는 《무당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1년 전 18%정도였던 《무당층》이 현재 29%로 11%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속에 비주류정치인

들이 기성정당들에 대한 민심의 불만이 높아가고있는 것을 리용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해보려 하고있는 것이다.

씩씩대로 씩은 페롤페드의 서식지, 인간오작품의 란부장으로 전락한 남조선정치권의 말세기적풍조가 낡은 필연적귀결이다.

권력과 향락에 매몰된 사이비정객들, 백해무익한 정치식객들을 한사바벌려야 할때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오늘의 남조선정국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시한독판》 들고 《망국렬차》 타고 돌아온 윤석열, 《전쟁먹구름 몰고오는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윤석열역도의 반민족적인 미국행각을 규탄하여 남조선언론 《민플러스》 기자가 쓴 글)

《시한독판》 들고 《망국렬차》 타고 돌아온 윤석열, 《전쟁먹구름 몰고오는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윤석열역도의 반민족적인 미국행각을 규탄하여 남조선언론 《민플러스》 기자가 쓴 글)

《시한독판》 들고 《망국렬차》 타고 돌아온 윤석열, 《전쟁먹구름 몰고오는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윤석열역도의 반민족적인 미국행각을 규탄하여 남조선언론 《민플러스》 기자가 쓴 글)

《시한독판》 들고 《망국렬차》 타고 돌아온 윤석열, 《전쟁먹구름 몰고오는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윤석열역도의 반민족적인 미국행각을 규탄하여 남조선언론 《민플러스》 기자가 쓴 글)

《시한독판》 들고 《망국렬차》 타고 돌아온 윤석열, 《전쟁먹구름 몰고오는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윤석열역도의 반민족적인 미국행각을 규탄하여 남조선언론 《민플러스》 기자가 쓴 글)

《시한독판》 들고 《망국렬차》 타고 돌아온 윤석열, 《전쟁먹구름 몰고오는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윤석열역도의 반민족적인 미국행각을 규탄하여 남조선언론 《민플러스》 기자가 쓴 글)

《시한독판》 들고 《망국렬차》 타고 돌아온 윤석열, 《전쟁먹구름 몰고오는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윤석열역도의 반민족적인 미국행각을 규탄하여 남조선언론 《민플러스》 기자가 쓴 글)

3 660 여종의 상품들, 높아가는 경쟁열의



공화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끌고 있는 《보철전국상품전시회-2023》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28일부터 평양 제1백화점, 평양아동백화점, 평양지하상점, 서평양백화점,

동평양백화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전시회에는 공업품, 식료품, 가정용품, 전자제품 등 3 660여종의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되었다.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인민위원

회에 소속된 공장, 기업소들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소비생산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다양한 소비품을 경쟁적으로 이번 전시회에 내놓았다. 또한 상업부문 식료가공, 반

리용생산단위에서 만든 제품들과 식료가공품, 8월3일인민소비품, 각종 농토산물을 비롯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대표할수 있는 제품들도 출품되었다. 전시회가 시작된 첫날부터 평양제1백화점과 평양아동백화점, 평양지하상점, 서평양백화점, 동평양백화점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평양제1백화점의 한 일군은 지난 시기에도 전시회들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이번 전시회처럼 백화점의 곳곳에 상품들이 차고넘치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출품된 상품들의 가치수와 참관자수를 보아도 전시회의 생활력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고 말했다. 상업성의 한 일군도 매년 전시회가 진행될 때마다 출품되

는 상품들의 가치수가 더욱 높아지고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것이 알린다고 말했다. 생활의 세부적인 요소까지 반영하여 품을 들고 세트를 지향하는 진취적인 일본새로 지난 시기에 한걸음, 두걸음 전진하였다면 올해에는 열걸음 비약하였다는 선견적공장 일군의 목소리, 상품들의 질은 결코 공장의 력사가 오래고 물결기술적대세가 그 존하다고 하여 절로 높아지는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를 어느만큼 반영하였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판단된다는 통약산비누공장 일군의 목소리는 많은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나라의 경공업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보철전국상품전시회-2023》이 가지는 의의는 자못 크다. 본사기자 리철민

새 의약품개발에 큰 힘을 넣는다

— 통 홍 제약 공장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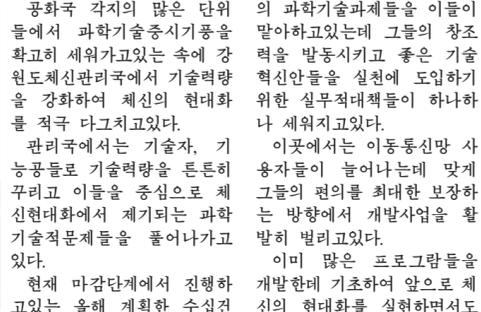
공화국의 통 홍 제약 공장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의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다. 지난 수십여년간 공장의 물질기술적대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온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약품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고 설비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가고 있다. 또한 인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대중약품, 상비약품을 만드는것을 의약품생산의 첫자리에 놓고 있다. 실력이 없으면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해볼수 없으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것을 잘 알고 있는 이곳 종업원들은 매일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에 대한 현상모를 진행하고있는데 그때마다 일군들부터 앞장서서

새 기술혁신안을 내놓고 있다. 이 과정에 공장에서는 믿음성있고 실리있는 여러가지 새 의약품들을 개발하였으며 학위학직소유자대렬도 늘어나고 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으로 하여 인민들의 무병장수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본사기자



체신의 현대화를 다그친다



민요 《통강기나리》는 통강지방을 비롯하여 평안도일대 농민들이 농사일 특히 모내기과 김매기를 하면서 부른 노동민요이다. 민요 《통강기나리》는 먼저 기나리를 부르고 다음에 타령을 부르는 편곡곡형식의 노래인데 일반적으로 기나리는 작업시작전에, 작업이 한창 고조되었을 때에는 타령을 불렀다. 이들이 주고받는 노래소리가 얼마나 구성되고 듣기 좋았던지 길가던 사람들이 이 노래소리에 취하여 해져 무는줄 모르고 들었다는 이야기가 오늘날 이 지방 사람들속에서 전설처럼 전해져오고 있다. 서도지방사람들의 생활속

에 깊이 침투되어 모내기와 김매기, 풀베기 등 노동생활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널리 불리운 민요 《통강기나리》는 락천적인 노동생활과 그 과정에 맺어지는 처녀와 총각의 사랑의 감정에 관한 3편으로 자유롭게 흐른다. 기나리에 이어 울리는 타령의 선율은 상대적으로 흥겹고 약동적이며 긴드러진 정서로 일관되어있는것으로 하여 흥취를 돋구어 준다. 6/8박자의 선율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굵기리장단에 기초한 활동적인 음조들로 엮여진것으로 하여 노동의 흥겨움으로 어깨춤 들썩이는듯한 정서를 받아안게 한다. 특히 높은 음구에서 가슴 후련하게 뿜아내는 후렴부분의 선율은 성실한 노동으로 행복의 열매를 가꾸어가는 농민들의 기쁨과 희열을 펼쳐주고 있다. 본사기자

공화국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증시기공을 확고히 세워가고있는 속에 강원도체신관리국에서 기술력량을 강화하여 체신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이곳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로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체신현대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 현재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는 올해 계획한 수신킨

의 과학기술과제들을 이들이 맡아하고있는데 그들의 창조력을 발동시키고 좋은 기술혁신안들을 실현에 도입하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고있다. 이곳에서는 이동통신망 사용자들이 늘어나는데 맞게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발사업을 활발히 벌이고있다.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체신의 현대화를 실현하면서 사용자들의 효령을 받을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것이 기본목표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즐거움을 안겨주는 민속놀이 봉사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민속오락장에서 민속놀이봉사를 잘 하고있다. 오락장은 2층으로 되어있는데 1층에서는 주로 바둑을 하고있다. 그리고 2층에서는 장기와 씨너놀이 하고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체로 바둑과 장기에서 한다면 실력자들이다. 평양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알자리에 있는 애호가들이 오는것으로 하여 이곳에 가야 경기가운 경기를 해볼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곳 민속오락장에는 바둑, 장기 등 민속놀이를 할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또한 민속놀이와 관련한 정보기술봉사도 친절하게 해주고있다. 오락장벽면에는 우리 민족사에 이름을 남긴 애국명장들을 형상한 그림과 이름난 화가들이 남긴 그림을 그대로 형상한 모사품들도 있어 분위기를 돋우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다.

이곳 민속오락장의 책임자는 민속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봉사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5월의 절기와 민속

또한 뽕순이 한창 자라는 때이므로 누에치기를 시작하였다. 뽕순은 대체로 마스하지만 소만무렵에는 얼마동안 날씨가 차졌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무렵 우리 선조들은 발작물들의 감매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날씨가 식물이 자라는데 적합한 이 시기에 산나물을 식생활에 적극 리용하였다. 그중 봄에 들수 있는 산나물로는 들쭉, 곰취, 고비, 고사리, 참나물, 도라지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산나물들은 곡우, 립하, 소만때에 자라는것이

먹기 좋았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에 산나물을 뜯어 여러가지 나물, 김치, 국 등을 만들어 먹었다. 우리 선조들은 이처럼 오래전부터 5월절기의 계절적특성에 맞게 근면하면서도 다양한 노동생활용품과 식생활품들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이어왔다. 올해의 립하는 5월 6일이며 소만은 5월 21일이다. 본사기자

시령우의 회초리

17세기 이듬있는 작가 김만중이 6살 았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서당에 갔다와서 책보자기를 방안에 던지고 친구들과 함께 놀던 그는 해가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켜채 엄한 얼굴로 아들을 쏘아보는것이였다. 김만중은 어머니의 뜻밖의 태도에 어안이 병병해졌다. 《내가 서당에 갔다와서는 어쩌라 했느냐?》 《어머니는 아들에게 서당에 갔다와서는 꼭 배운것을 익힌 다음에 놀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는 여직 어머니말대

로 했던것이였다. 《저 옷속에 올라가 서거라. 어서...》 김만중은 하는수없이 옷속에 올라갔다. 《종아리를 걸어라.》 어머니는 시령우에 얹어놓았던 회초리를 내려 아들의 종아리를 치기 시작하였다. 난생처음 때를 맞은 그는 자기가 잘못에 대한 생각보다 어머니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나 울음을 터뜨리며 한마디 했다. 《왜 때려요?》 《왜 때리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버지도 없는데 왜 때려요?》 《뭐라구? 아버지가 없더구?..》 어머니의 음성엔 떨렸고 두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녀석, 똑바로 듣거라. 이 회초리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이 회초리는 아버지

없을 애라고 버릇없이 자랄가봐, 대바른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할가봐 지켜보고 있는 너의 아버지의 열이다. 그래도 아버지가 없더구, 이녀석.》 어머니는 더욱 성나서 아들의 종아리를 쳤다. 김만중은 어머니말에 감동이 되어 풀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품에 와락 안겨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어머니말씀을 어기지 않겠어요. 어머니!》 《...》 품에 안긴 아들을 쓸어만지는 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며 김만중의 머리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이젠 깨달았으면 됐다.》 김만중은 이때부터 어머니의 말을 어기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그럭저럭 장쇠가 벼랑길을 무사히 지나가자 최서방은 마누라가 머리에 인 꼬지 않는 짐을 훌 집어내려 자기 등 에 지고 《발아래는 보지 말구 나를 따라서우.》 하고는 벼랑쪽에 바짝 붙어 걸음을 내질었다. 그러나 리씨는 최서방의 옷자락을 짝 거머쥐고 두어걸음 옮기더니 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움직이지 못하였다. 두발이 땅에 딱 들어붙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먼저 지나간 젊은 축들은 깔깔 웃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느라 애를 썼다. 《장쇠 어머니, 아래는 아예 보지 말구 발을 옮겨질세우. 여기가 북방산길보다 더 험하단데 그렇게 쉽겠나.》 먼저 벼랑을 지나간 늙은 이들도 수뿃을 내리쳐며 절절거리었다. 《허허... 저런 변이 있나. 령감님 옷자락에만 매달리지 말구 어서 발자국을 떼시우. 열매대왕께로 가겠는지, 옥황상제께로 가겠는지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두눈을 딱 감구 살살 걸음을 치시우.》 리씨는 젊은이들과 로인들의 부추겨주는 우스개말에 위안을 받으며 최서방을 따라 간신히 벼랑길을 지나 나오더니 안도의 모두숨을 훌 내쉬었다. 《됐수다. 아무렴 그렇게

지. 한창때엔 널뛰기. 그네 뛰기에서 해마다 상을 타던 보배 어머니가 그럴수가 없지. 허허허... 이제 힘든 고비를 다 넘겼수다.》 일행은 《안들이, 《지들이》 구간을 지나 망월봉에 올랐다. 평평해진 곳에 사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쉬면서 다정히 음식들을 나누었다. 숨가쁜 등산길을 걸은 뒤인지라 모든 음식이 꿀같이 달고 넘진 음식은 다 살로 가는듯했다. 일행은 대흥산성 남문을 지나 대흥팔로 내려섰다. 드디어 천마산줄기를 타고넘은 것이였다. 일행은 그냥 내쳐 걸어서 관음사에서 려장을 풀었다. 천마산을 넘어온 피곤을 무릅쓰고 모두가 관음사 대웅전이며 관음굴이며 그안에 서있는 7층돌탑을 구경하였다. 관음사는 970년대에 법인 국사라는 스님이 천연바위굴 안에 관음보살상 한쌍을 앉혀놓고 그 굴을 관음굴이라고 부른 때로부터 사찰로 알려지고 그후에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건물들을 세우고 사찰의 이름을 관음사라고 불렀다고 한다. 최서방내외와 장쇠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관음굴에도 들어가보고 부엌에 깔려나온 운나라라는 소원이 있는 어머니의 립종에도 못가보게 한 관리들에 대한 원한을 풀고

마지막지점인 박연폭포를 향하여 떠났다. 개울을 따라 성북문에 이르자 성북문에 있는 큰 바위 밑에 바가지처럼 생긴 못이 보이는데 그것이 박연이였다. 이 못에 고였던 물이 벼랑 아래쪽으로 쏟아져내려서 박연폭포를 이루는것이였다. 사람들은 아득히 높은 벼랑에서 곧추 날아떨어지는 폭포를 아래서 올려다보기도 하고 벼랑우에서 내려다보기도 하고 《범사정》정자에 올라 옆에서 보기도 하였다. 에서 그윽히 울려져서 서해 통왕의 딸을 반하게 했다는 전설속의 박연사의 퍼리소리가 들려오는듯도 하였다. 박연의 이 절경을 떠나서 어찌 북성귀등산놀이를 말할수 있을것인가. 황진이가 지은 시중에 《박연폭포》라는 시도 있다. 물소리 골안에 우뢰로 울고 물방울은 공중에서 구슬로 쏟아지네. 려산이 좋다 하지만 천마산의 이 폭포 누리에서

보는 곳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도 하였다. 장쾌한가 하면 시원스럽기도 하고 장엄한가 하면 웅장스럽기도 하였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쿵쿵 쏟아져내리는 물소리는 우뢰소리같기도 하고 노한 울부짖음같기도 하고 천군만마가 내달리는 말발굽소리같기도 하였다. 개성이 낡은 유명한 황진이 가 젖은 머리를 휘둘러했다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우에 오르니 그 옛날 이 못가 으뜸이요

남의 나라 명산보다 내 나라 박연폭포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이 궁지높은 흠뻑림은 나라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사랑의 메아리였다. 박연폭포에 다녀간 사람이 천이면 천번, 만이면 만만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들이 뜨겁게 울려있을것이니 오호, 금수강산아, 고향산이요! 너는 것처럼 아름답기에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낳고 아름다운 풍속을 낳고 애국을 날아키우는것이로구나! 최서방내외와 장쇠는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깊은 감동속에 하루를 보냈다. 나라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사랑을 키워주고 몸단련에 마음단련까지 시켜주는 이 등산놀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것인가. 무시울사람들은 저물녘이 되어서야 귀로에 들었다. 대흥산성 북문을 빠져나와 골계수를 거슬러 대흥사를 향해 등산길을 걸으면서 살피보니 산굽이마다 절경이 물굽이마다 명소였다. 일행은 대흥사에 이르러 돌층계아래에서 개울가로 마당처럼 넓게 펼쳐진 너럭바위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새워 춤을 추다가 다음날 아침에 남문을 거쳐 성을 빠져나왔다. 남문에서 발아래로 멀리 펼쳐진 산과 들을 바라보니 참으로 장쾌하였다. 마치 구름우에서 이 땅을 굽어보는듯한데 기묘한 바위들과 단풍으로 단장한 크고작은 봉우리들, 그 사이사이로 굽이굽이 흘러가는 맑은 개울. 어떻게 익어가는 들판... 한쪽의 산수화를 마주하고 선듯하였다.